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41, No. 1. February, 2024. 138~148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4.41.1.138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진[1] · 채우영[1,†]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4년 1월 12일 접수: 2024년 2월 27일 수정: 2024년 2월 28일 채택)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Strength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Hyun-Jin Kim · Woo-Young Chae[1,†]

Dep. Nursing, Suwon Wonen's University
(Received January 12, 2024; Revised February 27, 2024; Accepted February 28, 202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 지역 소재 간호대학생 172명으로 자료수집은 2022년 11월 7일에서 12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강점인식(r=.31,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6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β=.53, p<.001), 전공 선택 동기에서 타인의 권유(β=-.20, p=.0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전공만족도를 42.6%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trength,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major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2 nursing college students located in G Cit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7 to December 21,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8.0 program. As a

†Corresponding author
(E-mail: mychae99@hanmail.net)

result of the study, majo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ption of strength (r=.31, p<.001) and academic self-efficacy (r=.62, p<.001).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academic self-efficacy (β=.53, p<001.) and advice from others as motivation of choosing major (β=-.20, p=.002), which explained 42.6% of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used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a follow-up study that can expand the subjects and explain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s suggested.

Keywords : Major satisfaction, Perception of strength, Academic self-efficacy, Nursing, College student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을 지니고 있어, 진로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대학생들은 독립적인 성인기로 이행하게 되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휴학이나 자퇴, 졸업유예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1]. 또한 대학생은 대학 생활의 부적응, 취업 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의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1]. 2016년 서울서베이 통계에 따르면 20~60대 이상의 연령층 중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의 스트레스 체감도는 58.2%로 다른 연령층보다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다[2].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 펜더믹 상황으로 간호사의 직업적 이미지에 대한 상승으로 간호학을 선호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였다[3]. 더불어 타 직업군과는 달리 취업률이 높고, 경제적 측면의 안정성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4], 간호교육 인증제로 인해 높아진 간호교육의 질, 간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상승함에 따라[5]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전공 교과에 대한 이론적 학업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때로는 직업적 가치관에 대한 고민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며, 취업이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임상 간호사로 진출하기로 한다. 간호대학생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른 채 간호사에 대한 직업적 이미지 상승과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 만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6].

대학생에게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목표한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전공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판단 과정이다[7].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미래와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보 없이 입시 성적에 맞추거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전공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학년에서 전공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게 된다[8]. 전공만족도의 감소는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 성적 저하,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유발,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9]. 반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본인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업 생활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학과 성적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이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져다주어 취업준비행동을 격려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강점인식은 긍정적 자기개념의 형성과 유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강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10].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 따라 자기(self)의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측면인 강점(strength)에 주목하면서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11-15]. 강점은 어떤 상황이나 경험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며, 특정한 선택과 목표 및 행동과 관련되고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10].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강점인식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10],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16].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점인식과 전공만족도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점인식이 전공만족을 예측하는 변수인지 검증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자신의 학습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7]. 즉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새로운 상황 등에서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는 원동력이 높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과제를 지속하는 학업 성취도를 위해 노력한다[18,19].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어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았다[20].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임상수행 능력[2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22].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로서 대학생들이 가지는 긍정적 자기 촉진을 하는 강점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또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 지역 소재 간호대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에 의해 유의수준은 .05, 효과의 크기는 .15, 검정력은 95%, 예측변인은 9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166명이 산출되어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5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대학의 절차에 따라 2022년 11월 7일에서 12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8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78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17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강점인식

강점인식은 Govindji 와 Linley [23]가 개발한 강점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Kim과 Lee [24]가 번안한 총 8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24]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ong 등[25]이 개발한 SMILES 학업적 자기효능감척도(Academic Self-Efficac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 자기효능감의 2개의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개의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 항목의 문구 중 '[과목]'을 '[전공]'으로, '선생님'을 '교수님'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정말 그렇다)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Bong 등[25]의 연구에서 학습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 .87, 수행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기효능감 .91, 수행 자기효능감 .87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Braskamp 등[26]이 개발한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Ha 와 Kim [2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Lee [8]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만 추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7문항이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배포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 정보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과 비밀 보장 및 무기명 처리, 연구 참여 도중 철회가 가능함, 연구 참여 철회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포함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WIN 28.0(USA, IB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백분율과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이 142명(82.6%)으로 많았으며, 2학년 학생이 48명(29.9%), 1학년 학생이 44명(25.6%), 3학년 학생이 42명(24.4%)로 많았다. 학교 성적은 중으로 답한 대상자가 123명(71.5%)로 많았고, 전공 선택 동기는 안정적 직업으로 답한 대상자가 107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좋음으로 답한 대상자가 157명(9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26명(73.3%)으로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강점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4.75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4.74점이며, 2개의 하위차원 중 학습 자기효능감은 평균 4.62점, 수행 자기효능감은 평균 4.96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일반적 특성 중 학교 성적(F=11.02, p<.001), 전공 선택 동기F=5.9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학교 성적이 높은 대상자가 중간과 낮은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 점수의 고려가 타인의 권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공만족도는 강점인식(r=.31,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6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강점인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34,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0(17.4)
	Female	142(82.6)
Grade	First	44(25.6)
	Second	48(27.9)
	Third	42(24.4)
	Fourth	38(22.1)
School record	High	23(13.4)
	Middle	123(71.5)
	Low	26(15.1)
Motivation of choosing mojor	Aptitude, Interest	45(26.2)
	Stable job	107(62.2)
	Advice from others	10(5.8)
	Consideration the score	10(5.8)
Subjective health	Good	157(91.3)
	Moderate	4(2.3)
	Poor	11(6.4)
Religion	Yes	46(26.7)
	No	126(73.3)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172*)

Variables	M±SD	Min	Max
Perception of strength	4.75±1.01	2.25	7.00
Academic self-efficacy	4.74±1.02	2.50	7.00
Academic self-efficacy for learning	4.62±1.06	1.40	7.00
Academic self-efficacy for performance	4.96±1.09	2.00	7.00
Major satisfaction	4.06±.59	2.94	5.00

Table 3. Major Satisfac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3.40±.66	−.85	.398	
	Female	4.08±.58			
Grade	First	4.08±.62	.27	.848	
	Second	4.00±.55			
	Third	4.10±.64			
	Fourth	4.08±.58			
School record	High[a]	4.57±.48	11.02	$p<.001^{***}$	a>b,c
	Middle[b]	3.99±.55			
	Low[c]	3.96±.67			
Motivation of choosing mojor	Aptitude, interest[a]	4.30±.54	5.96	$.001^{**}$	a,d>c
	Stable job[b]	3.96±.58			
	Advice from others[c]	3.73±.67			
	Consideration the score[d]	4.41±.38			
Subjective health	Good	4.07±.59	.60	.55	
	Moderate	4.07±.69			
	Poor	3.87±.60			
Religion	Yes	3.94±.71	−1.62	.107	
	No	4.11±.54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of Perception of strength,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N=172)*

Variables	Perception of strength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r(*p*)	
Perception of strength	1		
Academic self-efficacy	.34($p<.001^{*}$)	1	
Major satisfaction	.31($p<.001^{*}$)	.62($p<.001^{*}$)	1

$^{*}p<.001$

3.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갖는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여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강점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 성적, 전공 선택 동기를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통제한 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시행을 위해서는 독립변수 사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고 종속변수는 자기 상관이 없어야 한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값이 .448~.858을 보여 .10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65~2.232로 나타나 가장 큰 값이 2.232로 나타나 10을 넘는 변수가 없었다. 이에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검증인 Durbin-Watson 지수가 2.004로 확인되어 2에 가까운 수용 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어 독립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β=.53, p<.001)과 전공 선택 동기 중 타인의 권유(β=-.20, p=.002)가 적을수록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9.15,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426으로 연구 변인들이 전공만족도를 42.6%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3.6.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6점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로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를 매개효과로 한 연구의 전공만족도의 평균 3.73점[22]보다 더 높았으며, Chung의 [28]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전공만족도 점수보다 높았고,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의 3.99점 보다 높았다. 이는 학업성적이 4.0 이상인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해 입학한 경우였던 Kim 등[22]의 연구에서의 학생 특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Kim 등[22]의 연구에서 지난 학기 성적이 4.0 이상이며, 본인 의사에 의해 입학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 선택의 동기가 적성과 흥미, 성적 등을 고려했다는 대상자가 많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점수가 높은 것은 학생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에 흥미를 높여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Kim 등[22]은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Ju 와 Bang 의 연구[29]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어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생들이 학과 선택의 동기가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임을 감안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

Table 5. Influence Variables on Major Satisfaction *(N=172)*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66	.29		9.21	.000***
Perception of strength	.05	.04	.09	1.37	.172
Academic self-efficacy	.31	.04	.53	7.66	.000***
School record 1+	-.19	.11	-.14	-1.64	.104
School record 2+	-.17	.14	-.10	-1.22	.226
Motivation of choosing mojor 1+	-.16	.084	-.14	-1.96	.052
Motivation of choosing mojor 2+	-.49	.16	-.20	-3.11	.002**
Motivation of choosing mojor 3+	.07	.16	.03	.47	.641
		R^2=.450, Adjusted R^2=.426			
		F=19.15, p=.000, Durbin-Watson=2.004			

*p<.05, **p<.01, ***p<.001

+Dummy Variables; School record(ref.=High), Motivation of choosing mojor(ref.=Aptitude, Interest)

램을 계획할 때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한 공유와 팀 활동이 학업과 함께 진행된다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7점 만점에 평균 4.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의 연구[30]에서의 4.82 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같은 연구도구는 아니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8, 22]. 이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전공만족도는 학업 성취도를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대학에서는 학업 자신감 및 강점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학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여러 연구에서 입증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을 격려하거나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학업의 커리큘럼 속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학업에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의 평균은 4.75점으로 Kim [10]의 연구의 평균 4.66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강점인식을 적용한 간호대학생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수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Kim [1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주로 3학년과 4학년 대상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년이 1.2.3.4학년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Kim [10]의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1.2학년 때부터 강점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생 상담 시 학생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성찰을 이끌어 내며 긍정적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신의 강점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4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선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점인식이 전공만족을 예측하는 변수인지 검증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강점인식은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강점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31]에서 학습몰입과 학습 동기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강점인식이 높다면 자신의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측면인 강점(strength)에 주목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경험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한 선택과 목표 및 행동과 관련되고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1-12].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좋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듯이 강점인식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Ma 등[32]의 연구에서 1학년 학생에게 내적 동기를 이끌어 내고, 학업에 대한 소진을 줄이고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학업성취도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 간 인과관계를 좀 더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선택 동기 중 타인의 권유가 적을수록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상관성 및 관계는 여러 연구와 본 연구의 논의의 앞부분에서 언급하였고, 전공선택의 동기 중 타인의 권유가 적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이 컸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입학 동기가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더 높다는 Kim 등[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학과 선택의 점수는 적성과 흥미가 가장 높았고, 직업의 안정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타인의 권유가 적을 때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Oh 등[30]의 연구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보다 본인 의사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같으며, Kim 등

[3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즉 학과 선택 시 자의로 선택한 학생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자기 주도 학습능력도 높고, 전공 선택의 동기가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전공만족도의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입학 시 전공 선택 동기 등을 파악하여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동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목표설정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강점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외에도 강점인식과 다른 요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강점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아본 연구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로써 간호대학생이 전문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강점인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선택의 동기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 선택의 동기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 개 학교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 J. Kim, H.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based on goal orientation Typ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7, No.12 pp. 600-616, (2017).
2. C. H. Lee. Seoul, a stressful city...20’s 58%[Internet]. Seoul: Seoulend, c2017[cited 2017 April 20], Available from: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840.html. (accessed Feb., 21, 2024)
3. M. S. Kim,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1 pp. 96-105, (2019).
4. G. H. Park, “College of nursing by general, transfer and RN-BSN comparison of life nurse images”, *Unpublished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2012).
5. E. J. Jo, J. H. Park, G. M. Lim,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 329-337, (2019).
6. H. Y. Kim, B. M. Kim, “Effects of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n career search behavior”,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Vol.7, No.3 pp. 15-22, (2021).
7.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 7-20, (2000).
8.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4).
9. H. S. Song, S. H. L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carri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4 pp. 21-36, (2017).
10. K. H. Kim,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3, No.3 pp. 363-370, (2022).
11. M. J. Kim, H.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 1811-1830, (2014).
12. J. W. Lee, K. H. Lee,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on undergraduate student's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1 pp. 205-228, (2017).
13. N. K. Cho, J. H. Kwon, M. Y. Jung,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s use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 Journal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3, No.3 pp. 1-27, (2016).
14. B. A. Allan and R. D. Duffy, "Examining moderators of signature strengths use and well-being: Calling and signature strengths leve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5, No.2 pp. 323-337, (2014).
15. Y. S. Oh, "The effects of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based on character strengths and Lectio Divina for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Vol.24, No.1 pp. 133-163, (2016).
16. S. Y. Roh,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self leadership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6 pp. 883-891, (2022).
17.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 191-215, (1977).
18.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5, No.5 pp. 559-566, (2013).
19. D. H. Schunk, "Self-efficacy for reading and writing: Influence of modeling, goal setting and self-evaluation".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Vol.19, No.1 pp. 159-172. (2003).
20. Y. J. Joo, N. Y. Kim, H. K. Cho,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online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14, No.3 pp. 115-135, (2008).
21. E. J. Im, J. S. Lee, "The effect of grit,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7, No.2 pp. 399-406, (2022).
22. J. Kim, H. O. Kim, M. H. Le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5, No.2 pp. 205-213, (2019).
23. R. Govindji, P. A. Linley, "Strengths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Vol.2, No.2 pp. 143-153, (2007).
24. M. J. Kim, H. K,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5 pp. 1811-1830, (2014).
25. M. M. Bong, S. I. Kim, R. Johnmarshall, H. J. Lim, W. G. Lee, J. Yi, J. H. Kim, H. J. Kim, A. L. Rho, U. K. No, S. H. Bak, J. Y. Song, J. Y. Shin, H. S. Ahn, Y. K. Woo, S. J. Won, K. H. Lee, M. H. Lee, S. K. Lee, S. Y. Lee, J. S. Lee, Y. K. Jung, C. Cho, A. L. Hwang. SMILES (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Internet]. Seoul: Korea University Brain & Motivation Research Institute, c2012[cited 2012], Available From: http://bmri.korea.ac.kr/english/research/assessment_scales/list.html?id=assessment(accessed Oct., 10, 2022).
26. L. A. Braskamp, S. L. Wise, D. 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1, No.4 pp. 494-498, (1979).
27. H. S. Ha, G. H. Kim,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 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 7-20, (2000).
28. E. S. Seo, K. A. Chung,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major, adjusting to college life and self-esteem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and optic science at a university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Vol.17, No.3 pp. 213-225, (2015).
29. Eunsol Ju, Yosoon B, "A study on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2, No.5 pp. 1593-1604, (2021)
30. S. H. Bae, "Differences in task value and future tim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latent profiles analysi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2022).
31.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 873-884, (2014).
32. R. W. Ma, E. J. Lee,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pp. 521-531, (2017).
33. Y. N.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 2661-270, (2016).